

광주 총선 최대 격전장 된 서구 갑

민주 박혜자, 무소속 조영택·송갑석·정용화 대격돌

논란을 빚었던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 갑 공천자로 박혜자 예비후보가 21일 최종 확정되면서 서구 갑 선거구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광주 서구 갑 선거구는 민주통합당·새누리당·통합진보당 등 각 정당 후보들과 3명의 무소속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광주 8개 선거구 중 최대 접전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공천자 17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인 박혜자 후보는 공천이 늦어짐에 따라 조직을 다시 재검토해 본격적인 본선

경쟁에 뛰어들 계획이다. 하지만,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조영택 의원의 민주당 지역위원회 조직을 박 후보 측이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향후 선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택 의원은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는 '인물론'을 내세워 오피니언 리더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하며 표밭을 넓히고 있다. 조 의원은 것으로 알려진 예도 불구하고, 시·구위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견제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당 지도부의 불공정한 공천을 직접 심판해줄 것을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용화 후보도 가장 먼저 무소속으로 나서 지지세를 넓혀 왔다.

공천 막판까지 이름이 오르내렸던 송갑석 후보는 이날 공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1위의 후보는 경쟁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지지도가 한참 아래인 여성 후보가 경선에 오르는 비상사태인 일이 벌어졌다"며 "수차례 이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민주당은 민심과 여론을 끝까지 외면했다"며 무소속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구 갑 선거구 무소속

후보는 조영택·정용화 후보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 민주당 대 무소속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총선 후보 등록 하루 전까지 공천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만큼 서구 갑 선거구민들의 반(反) 민주당 정서도 높아지고 있어 민주당의 '뒷받침'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공천 잡음'으로 시끄러워진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정 후보도 반 민주당 정서를 과감히 버리고 지지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상용재 광주시당 부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각 정당 간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본선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여야 선대위 출범...본격 표밭갈이

위원장에 새누리 박근혜·민주통합 한명숙

여야는 선관위 후보 등록을 하루 남긴 21일 4·11총선 선거대책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회회관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대위 발대식을 가졌다. 선대위 부위원장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총괄본부장에 권영세 사무총장, 종합상황실장에 이해춘 의원, 남내 대변인에 이상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조운선 의원이 각각 기용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드렸던 약속

까지 뒤집는 세력에게 국민의 삶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친노(親盧·친 노무현) 진영 등 야권을 겨냥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의 승리가 곧 애국이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선거에 임해달라"며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달라.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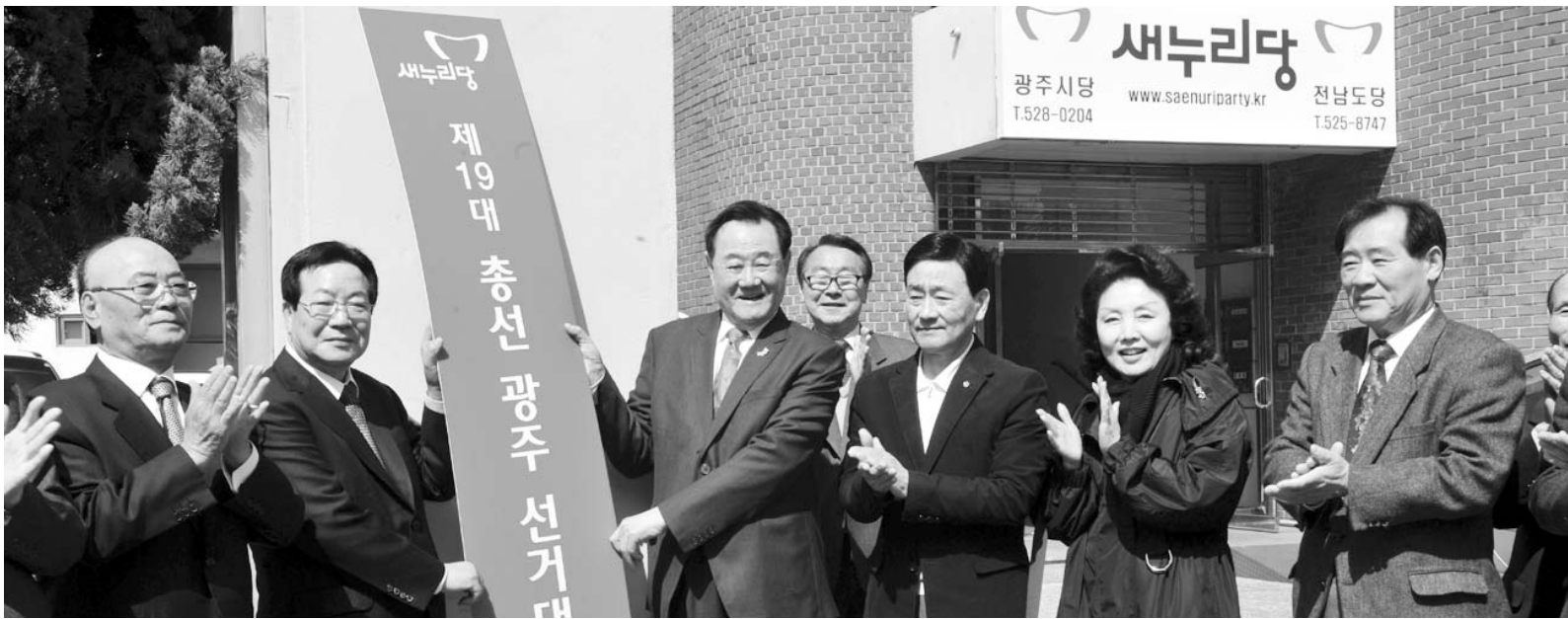
민주통합당도 이날 한명숙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특별 선대위원장에 는 정동영·정세균 상임고문,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남순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당내 유력인사들이 임명됐다. 손학규 전 대표는 백의중군을 선언,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공동 선대위원장은 문성근·박지원·이인영·김부겸·이홍덕·남윤순·김광진 최고위원이 맡았다.

한 대표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가 만든 4년의 실정을 연정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느냐는 선택"이라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승리하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광주시당 선대위 발대식.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21일 광주 북구 중흥동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김정업 선대위원장과 성영대 본부장 등 당직자들이 현판을 걸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누리 공심위 비례대표

이봉화 취소·이만우 확정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1일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비례대표 15번) 공천을 하루 만에 취소했다.

당 공심위는 이날 이 원장과 고려

대 이만우 교수에 대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재심사 요구를 받고 재심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이 교수에 대해서는 공천 유지 판정을 내렸다.

이 원장에 대한 공천 취소는 2008년 보건복지부 차관 재직 시절에 있었던 땅 투기 의혹과 쌀 직불금 불법 신청 논란이 직접적인 원인이 것으로 전해졌다.

'MB노믹스' 상징 인물로 논란을 일으킨 이 교수는 경제 민주화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인물이라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당 공심위는 공천 유지 사유를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국민경선 깊이 반성해야”

광주·전남 6개 단체

무안군수 출마 김호산 후보

‘희망펀드’ 1억3000만원 달성

4·11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정치인 펀드' 개설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무안군수에 출마한 한 후보가 목표액을 달성, 조기 마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안군수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김호산 후보는 21일 '김호산 희망펀드'를 개설, 목표액인 1억3000만원을 달성해 조기 마감했다. '김호산 희망펀드'는 선거가 끝난 6월 10일을 기점으로 금리 3.58%를 적용해 참여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정치자금 모금 방식이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개설한 '김호산

희망펀드'가 애초 예정일보다 17일 가량 일찍 마감됐다"며 "펀드를 통해 일반 유권자가 선거자금을 마련한 것은 무안에선 처음이다. 유권자와 지지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 장원섭 광주 광산구 갑 예비후보도 22일 개국한 선거자금 확보와 투명한 선거운동을 위해 '장원섭 펀드'를 개설한다. 목표금액은 1억원이다.

앞서 통합진보당 오병윤·이민원·김선동 후보와 무소속 유인화·정용화 후보도 정치인 펀드를 개설, 비용을 모금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6개 단체 회원들은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은 애초 의도와 달리 관권·금권·동원경선으로 전락하고 선거운동원 투신사망 사건은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민주당은 국민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광주 공천의 난맥상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야권연대와 무공천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이들은 광주시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비례대표 1번 제의에 안철수 “부담스럽다” 고사

민주통합당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제의한 비례대표 1번을 제의했으나, 안 원장이 "부담스럽다"며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명숙 대표와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사이에 안 원장 영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민주당에서 안 원장 측을 접촉해 비례대표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 측은 "부담스럽다"고 고사했고, 민주당은 "부담을 느끼는 게 이해된다. 대신 제3의 인물을 제안한다면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촉에서 안 원장의 측근인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리니 원장의 설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원장 측은 "뜻은 고마우나 정치참여를 유보하겠다"고 완곡하게 거절, 안 원장 영입은 불발됐다.

이번 접촉 과정에는 문재인 상임

고문 측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 영입은 무산됐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고문 측과 안 원장 측이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12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연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안 원장 외에 정재승 한 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 및 뇌과학과 교수와 손석희 성신여자 대학교 교수, 방송인 김미화씨 등의 비례대표 영입을 추진했지만 본인들이 고사해 무산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다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미화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 업 명	(주)해주주택전시관 및 사옥신축공사		
사 업 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 지 면 적	2,411.20㎡ (729.39평)		
용 도 지 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 폐 율	59.53%(법정 : 60%)	용 적 율	478.73%(법정 : 480%)
구 모	지하0층 지상9층	최 고 높 이	55.50m
건 축 면 적	1,435.47㎡ (434.23평)	건 축 연 면 적	11,543.18㎡ (3,491.81평)
주 차 대 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부설주차장 : 대지면적 201.3평, 연면적 1,233.4평, 지상3층 철골조		
승 용 승 강 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에 스 켈 레 이 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용 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층 별	면 적	평	총 고	용 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 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평가)	14,000,000,000원
매 매 예 정 가 격	12,000,000,000원
현 공 정 율	약 85% 진행
적 용 가 능 용 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휘트니스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 시설 병합 등 최대층고가 7.5m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공,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